용담호 댐역사 디지털로 기록

진안군-국립전주박물관-K-water 용담댐지사, 스마트기록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민의 생명수를 제공하고 있는 진안군 용담호·댐 역사가 디지털로 기록된다.

진안군은 1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 K-water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세진)와 '용담호 댐역사 스마트기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용담호 댐 역사 관련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공유·활용·확산에 상호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진안군과 국립전주박물관, K-water 용담댐지사가 지난 2021년 용담댐 특별전 기념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뜻을 모아 국립전주박물관과 진안역사박물관에서 공동개최한 '용담, 새로이 기억하다' 전시회가 계기가 됐다.

진안군은 1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 K-water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세진)와 용담호 댐역사 스마트기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용담호 댐역사 관련 자료 디지털 콘텐츠화, △각 기관이 소유한 용담호 댐역사 자료 상호 공유, △자료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전시 등 관련 사업 추진 등이다.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진안군은 올해 문체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진안역사박물관 구축사업을 통해 내년 1월말까지 용담댐 관련 역사문화자료의 아카이브를 추진할 계획이며 K-water 용담댐지사는 용담댐 담수전 3D 지형복원 사업을 통해 댐 건설 이전 지역의 모습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을 마쳤다. 또한 국립전주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용담호 댐 관련 문화재 및 역사자료를 정리하여 공유하는 등 각 분야별로 용담호 댐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군은 이를 통해 잊혀져 가고 있는 용담호 수몰지역의 역사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활용함으로써 용담호를 다시 한번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댐 건설로 인해 1만2,616명의 진안군민이 이주해야 했었던 아픔의 역사를 지닌 용담호·댐의 역사를 디지털로 기록해 역사 자료의 보존은 물론 수몰지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수자원의 미래가치를 공유해 과거와 현재를 발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현장 행정으로 월동준비 심혈"

황인홍 무주군수, 12월 월례조회서 단계별 매뉴얼 정비 등 주문

황인홍 군수는 1일 동절기를 맞아 화재발생과 가스누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면서 현장 행정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무주전통문화의집에서 열린 12월 청원 월례조회에서 단계별 매뉴얼 정비와 현장중심의 대응으로 군민들이 걱정 근심을 덜면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분야별 월동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물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인 조치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계량기와 상수도 동파방지 안내를 철저히 하고 동파 관련 민원접수 시 선 조치후 보고를 원칙으로 즉각적인 복구체계 구축과 보일러 점검을 누수없이 추진해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과 관련해 많은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아울러 촘촘한 관리와 수시 점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불우 소외계층들이 각종 혜택과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행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2023 예산심사 대응 철저 △코로나 겨울독감 관리 만전 △음주음전 등 공직기강 확립 △무주사랑상품권 파급효과 홍보에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황 군수는 "무주 존립의 문제이자 생존이 달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 제시,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면서 당부말씀을 마무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추진으로 행복 장수 실현

대명티앤에스, 지역상품권 기탁

2022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장수군은 행복장수 실현을 위해 도내 언론사 및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시행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통해 '동행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지역'이라는 나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군에 따르면 1일 유한회사 대명티앤에스(대표 김상희)에서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수사랑 상품권 2,000만원 기탁하며 캠페인 기부의 시작을 알렸다.

최훈식 군수는 "캠페인 추진 기간 중 지난 2021년부터 지속해온 장수군 공직자 성금 모금 활동을 통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유관기관 및 읍·면에 적극 홍보해 나눔 문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 완료

하수처리구역 오수 적정 처리 · 수질보전 도모

무주군이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길왕마을과 사산리 마산마을 일원에 추진한 하수도 증설사업이 올해 11월 마무리됐다.

이 사업은 77억9,200만 원을 투입해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공사, 맨홀펌프장 등을 갖췄다

군은 지난 7월까지 하수처리장공사를 완료한 후 10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펼쳐왔다. 앞서 군은 무주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0년 첫 삽을 떴다.

이로써 하수관로 총길이 7.7㎞, 맨홀펌프장 7개소 설치와 배수설비 176개소등을 갖춰 일일 190톤의 하수 처리가 가능해 176 가구가 하수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무주군 하수처리구역 확장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로 적상면 하수처리 구역의 오수를 적정 처리하면서 수질보전 도모와 함께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깨끗한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따른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97억원 지급

진안군은 1일 이달 초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97억 원을 지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5,525농가 4,621ha에 97억원으로, 소농직불금 2,488농가에 총 30억, 면적직불금 3,037농가에 총 67억을 지급한다.

군은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대상자 자격검증과 농가 이행조건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지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정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 공급업체 공모

무주군은 1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답례품 공급 희망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에 대한 신청방법, 선정기준,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군은 오는 8일까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공고 후 9일부터 13일까지 재무과 고향사랑기부팀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는 19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군내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써 통신판매신고 등록업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 결과보고회 개최

장수군이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 결과보고회'를 1일 최훈식 군수 주재로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제 결과보고회에는 김홍기 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축제 기간 중 추진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결과보고를 공유하고 총평과 개선사항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태풍·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로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장수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돼, 약 34만명의 방문객과 한우마당 및 농산물 부스 등에서 34억여 원 판매 성과를 거뒀다.

최훈식 군수는 "2023년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의에 보고된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축제의 내실화를 다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회 결산 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1일 군청 강당에서 2022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회 결산총회를 열고 올해 홍삼축제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축제 추진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치러진 홍삼축제에 대한 결산 보고와 향후 홍삼축제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진행된 진안홍삼축제는 축제장 차량출입 통제와 먹거리관 이전 등 기존 축제와 다른 차별화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으로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추진위원들은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축제로 군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자고 뜻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